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8. 3.(화) 10:30	배포일시	2021. 8. 3.(화) 10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권기중 (044-215-5480)	담당자	김소연 사무관 yeoni2266@korea.kr
	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강준모 (044-215-7550)		성인영 사무관 inyoungs@korea.kr
	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조정과장 태원창(02-2100-1311)		임대성 사무관 dsyim@korea.kr

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, 경북도청 ·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방문, 「대구 · 경북 권역 예산협의회」 및 현장간담회 개최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8월 3일(화) 10:00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대구·경북지역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,
 - 이어서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였음

< 행사 개요 >

① 대구·경북 지역 예산협의회

- **일시·장소:** '21.8.3.(화) 10:00~11:30, 경상북도청
- **참석:** (기획재정부) 제2차관, 재정혁신국장, 국방예산과장, 예산관리과장, 참여예산과장 (대구광역시) 행정부시장, 경제국장, 일자리투자국장, 혁신성장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 (경상북도) 행정부지사, 기획조정실장, 과학산업국장, 문화체육관광국장, 환경산림자원국장, 건설도시국장 (국가균형발전위원회)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, 기획조정과장

②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장간담회

- **일시·장소:** '21.8.3.(화) 14:00~15:00,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단
- **참석:** (기획재정부) 제2차관, 재정혁신국장, 예산정책과장, 예산관리과장, 참여예산과장 (산업통상자원부) 입지총괄과장 (지자체) 경북 행정부지사, 경북 기획조정실장, 구미시장, 구미 경제지원국장 (관련기관)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진흥본부, 구미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(연구계 전문가)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【 대구 · 경북 권역 예산협의회 】

- 이번 예산협의회는 총 5차례 개최되는 권역별 예산협의회* 중 첫 행사로,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 등이 참석하여

* 광주·전라·제주(8.4), 부산·울산·경남(8.5), 대전·충청·세종(8.9), 수도권·강원(8.10) 순으로 후속 개최 예정

- 2단계 재정분권, 국가균형발전정책,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 국가·지방의 공통 재정현안 논의에 이어 대구와 경북의 내년도 예산사업 등에 대해 집중 토론하였음

2단계 재정분권

- 기재부(나주범 재정혁신국장)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.4조원 규모('23년)의 2단계 재정분권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

<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개요 >

(단위: 조원)

구분	'22년	'23년
①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신설	0.75*	1.0
② 지방소비세 인상(세율인상)	2.5 (2.7%p)	4.2 (4.3%p)
- 기능이양 연계 재원이전	1.3	2.9
- 기초지자체 중심 자원 순확충**	1.2	1.3
③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	0.2	0.2
지방재정확충분(①+②+③) 합계 / 순확충분	3.45 / 1.95	5.4 / 2.3

* '22년 2/4분기 사업시행을 고려하여 0.75조원 지원

** 지방교부세 감소를 고려할 경우 연간 1조원 수준 순확충

- ① (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)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과제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「지방소멸대응양여금」을 신설, 중앙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조원의 자주재원을 지자체에 정액교부**

* '22년은 2분기부터 집행을 목표로 0.75조원 교부

** 광역지자체간 조합이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, 여기에 국가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을 출연

- ① 지자체가 거점지역을 선정, 교통·주거·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장기(5년단위) 투자계획 수립
- ② 중앙부처는 동 계획 자문, 재정·정책금융·규제완화 등 관련 정책·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
- ③ 지자체·중앙부처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업시행 추진

⇒ 안 차관은 이번에 도입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①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 시계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, ②종전 단순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, 국가-지자체 공동과제 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재정분권 유형 도입 등 의미가 크다고 평가

② (지방소비세율 인상) 국가사업의 지방이양 등과 연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4.3%p 인상('23년 기준 4.2조원)

- ①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개발·복지사업(2.3조원 수준)을 2개년(22~23년)에 걸쳐 지자체로 이양하고 이에 상응한 이양사업 재원을 지방에 이양('22년 1.3, '23년 2.9조원)
- ②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자체 중심의 재원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원 순확충(기능이양과 무관)

⇒ 안 차관은 이번 2단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1단계 재정분권(지방소비세율 10%p인상)까지 포함해 지방소비세율이 총 14.3%p 인상(11→25.3%)됨에 따라, 국세 : 지방세 비율도 77.7:22.3('18년)에서 72.6:27.4('23년)으로 큰폭 개선되면서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

③ (국고보조율 인상)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부담이 큰 기초지자체를 선별, 국고보조율 차등지원

④ (지자체간 재원배분) 국가·지자체간 재원배분과 함께 지자체간 (일반행정-교육, 광역-기초지자체) 재원배분도 조정

- 광역/기초 지자체간 지방교부세 배분 비중*을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관련 기초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완화, 교육청-市·道간 공동사업비** 제도 도입 추진

* 지방교부세 기초지자체 배분비중(%) : 72.9('18년), 72.7('19년)

** 시도가 매년 교육청으로 납부하는 시도전입금을 활용('19년 3.2조원), 고등·평생·직업교육,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, 어린이 안전 등에 사용

□ 안 차관은 상기 재정분권 조치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, 지방세법 개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여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고,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 운영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힘

국가균형발전정책

□ 균형위(이용재 단장)는 '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'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, 지역특화산업 육성, 상생형 일자리 사업 등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,

- 향후 본격화할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*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음

* (예시) 부·울·경, 대전·세종·충청, 광주·전남 광역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

주요 지역개발 시책

- 기재부(나주범 재정혁신국장)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, 지역균형 뉴딜, 생활SOC 등 주요 지역개발 시책 투자성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지원방향을 설명
- ① (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)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('21년 0.7조원)을 대폭 확대할 계획
- ② (지역균형뉴딜) 한국판 뉴딜 2.0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투자규모를 확대
 - 지역 혁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지역균형뉴딜 사업으로 적극 발굴*·지원함으로써 뉴딜성과 가시화 및 지역체감 제고
 - *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,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
- ③ (생활SOC)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생활SOC 3개년('20~'22) 투자목표(30조원) 달성을 차질없이 지원

대구·경북 권역 현안사업

-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 문화·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국고지원 요망사업*을 건의하였음
- * (대구시) ①고정밀 가공공업의 공정 디지털·스마트화 지원, ②지역 중소기업 수출상품 가상 콘텐츠 제작 지원, ③한국전쟁 피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보존을 위한 문화관 조성 등
- (경북도) ①문경-김천 간 내륙철도,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철도·도로 구축, ②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한 산림레포츠 인프라 구축, ③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 등

- 이에 대해 안 차관은 ①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, ②지역균형 뉴딜 사업, ③규제완화와 연계한 특화산업 육성 등과 연계된 대구·경북 지역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음

- ① 대구 산업선 철도, 경북 동해선 전철화 등
- ②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, 경북 김천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등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 사업 지원, 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 등
- ③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, 경북 산업용 햄프 등 지역규제자유특구 사업 등

【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현장간담회 】

- 안 차관은 예산협의회에 이어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방문, 스마트그린 사업 추진현황 및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

- 구미산단의 주력인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*이 내년에 본격 추진되도록,

* 사업기간('20~'23), 총사업비 690억(국비 165억)

- 제조공정 디지털화, 안전·환경·교통 등 통합관제센터 확충,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성 등 집중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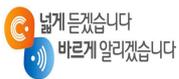
<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 내용 >

- ① (스마트제조혁신 기반) 산업단지 내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제조혁신을 위한 R&D, 시생산, 제품화 실증 인프라 구축
- ② (통합관제센터) 위험물·환경오염 데이터 수집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, 도로교통 데이터 수집과 교통·주차정보 안내체계 구축 등 노후산단의 디지털 인프라 확충
- ③ (스마트에너지플랫폼) ICT 기반의 에너지데이터 연결·공유를 통해 개별 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
- ④ (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육성) 스마트제조 분야 교육로드맵 수립, 교육 인프라 개선,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
- ⑤ (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)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조공정 설계 최적화 지원

□ 한편, 구미 산업단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은, 무엇보다도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,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,

- 입주 업체를 포함한 산업단지 내 안전 취약요인을 빈틈 없이 점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과,
-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폭염대비 근로자 긴급 보호대책*」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관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안전 활동이 일상화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* 무더위 시간(14시~17시) 공사중지, 폭염기간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 일시 정지 등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